한국기술교육학회지
THE KOREAN JOURNAL OF TECHNOLOGY EDUCATION
2015, Vol. 15, No. 3, pp. 298-322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 비교[1)]

김진모(서울대학교), 이명훈(충남대학교)
이시균(한국고용정보원), 김화영(이화여자대학교)
† 조영아(서울대학교), 송민철(서울대학교)
정보영(서울대학교), 최화영(서울대학교)

<요 약>

이 연구는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에 대하여 중등단계 직업교육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인식을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중등단계 직업교육 이해관계자들의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에 대한 인식을 확인함으로써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조사연구를 통해 중등단계 직업교육에 대한 이해관계자라 할 수 있는 시·도 교육청의 직업교육 담당자, 직업계고등학교의 교장 및 교감, 취업담당부장교사, 학교 연계 산업체의 인사담당자, 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인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설문은 총 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분석에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교차분석, F검정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중등단계 직업교육 이해관계자들은 인구변화를 고려할 경우, 인구와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는 동등하게 감소할 것이라 인식하지만, 현재의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교 수 및 학생 수는 적정한 수준보다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모든 이해관계자 집단이 중등단계 직업교육에 대한 산업수요에 대해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업계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셋째,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에 있어 모든 집단에서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일반계고 규모는 감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 정책 수립에 있어 학령인구 변화, 산업계 고졸인력 수요 등 객관적 지표에 근거하여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를 추정하여 개편 방향을 마련하는 동시에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고자 하는 현장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개편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제어: 중등단계 직업교육,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 인식 차이 분석

1)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8A02057041).
† 교신저자: 조영아, choa630@snu.ac.kr, 최화영, whyoch@snu.ac.kr, 02-880-4712

www.kci.go.kr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여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라 볼 수 있는 학교 및 학생 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실제 2014년 기준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생 수는 348,518명으로 1997년 960,037명 이후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고등단계 직업교육을 확대·육성하고자 한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교육통계연보, 2014). 이에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와 관련하여 학령인구 감소를 주요하게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 중등단계 직업교육 입학정원은 2012년 113,541명, 2013년 108,156명, 2014년 105,605명, 2015년 102,14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교육부, 2015)하고 있어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점차 감소하고 있는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생 수와는 대조적으로 고졸 인력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나승일 외, 2009; 정철영, 1997), 오히려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2012)은 고졸자의 신규 공급은 향후 10년간 67만 1천명, 신규 수요는 99만 1천 명으로 32만 명의 초과 수요가 전망된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 직업계 고졸자의 취업률 역시 2010년 19.2%에서 2014년 45.0%로 크게 향상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교육통계연보, 2014), 고졸 취업과 관련한 연구 결과에서도 산업계에서는 고졸 인력을 지속적으로 채용할 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종우, 최수정, 2014; 김향아, 2013). 또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업교육 위탁교육과정에 대한 희망자 수 역시 2010년 8,151명에서 2013년 12,581명으로 54.35%나 증가하고 있어 직업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교육부, 2015). 이와 함께 최근 정부는 청년실업 및 인력수급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학력과 학벌을 중시하는 고용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고졸취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도 중등단계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등단계 직업교육 적정규모 추정에 있어 학령인구 변화 뿐 아니라 직업교육에 대한 다양한 수요(산업계 수요, 학생들의 직업교육 수요 등)를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중등단계 직업교육 적정규모를 추정해야 한다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와 관련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함께 감소해야 한다는 의견, 산업계 인력 수요 및 직업교육 수요 등 중등단계 직업교

www.kci.go.kr

육 수요를 반영하여 현행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는 전체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정책적 요인으로 인해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고 할 수 있다(김진모, 2015; 문대영, 2007). 국가산업인력양성이 강화되면서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중등단계 직업교육이 계속교육을 지향하던 시기에는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는 감소하였다. 이 외에도 최근에는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2010.05)'을 통해 마이스터고 50개교, 특성화고 350개교로의 체제개편이 발표되어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규모에 있어 큰 변화가 일어났다.

따라서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등단계 직업교육 이해관계자들의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에 대한 인식을 확인함으로써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정책이 잘 수행되고 성공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지표 및 전문가들에 의한 정책방향 설정과 함께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현장 의견 반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이 연구는 중등단계 직업교육 및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는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교육규모에 대한 정의들에 근거하여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교 수(정진철 외, 2010), 학생 수(박도순 외, 2004; Lee & Smith, 1997), 그리고 전체 중등단계 규모에서 직업교육이 차지하는 비율(박동율 외, 2010)을 의미한다.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에 대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확인함으로써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규모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인식 및 집단별 인식 차이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분석하는데 있으며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인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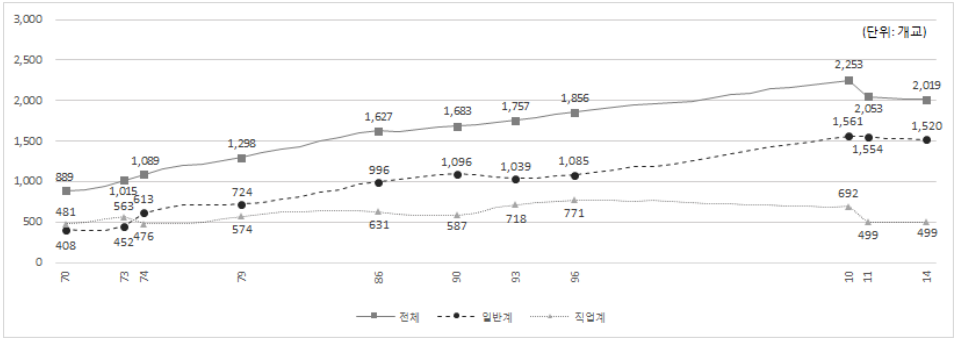
www.kci.go.kr

Ⅱ. 이론적 배경

1.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 변화

가.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교 수 변화 추이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교 수 변화 추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교육통계연보를 통해 1970년부터 2014년까지의 전체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및 직업계 고등학교 학교 수 변화를 확인하였다. 가장 먼저, 전체 고등학교 학교 수는 2010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전체 학교 수는 2,253개교로, 이는 1970년 889개교에 비해 1,364개교가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2010년도 이후 현재까지 고등학교 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1년 학교 수는 2,053개교로 전년도에 비해 200개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고등학교 학교 수 변화(1970-2014)

자료: 교육통계연보(1970-2014)
주: 직업계 고등학교 학교 수에 교육통계연보를 통해 확인이 어려운 마이스터고 수는 제외

일반계 고등학교 학교 수는 2010년도까지 전체 고등학교 학교 수의 변화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199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1,096개교에 달했으며, 이후 소폭 감소하여 1993년에는 1,039개교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0년도에는 1,561개교에 달했다. 2010년 이후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교 수는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그 변화 폭은 전체 고등학교 학교 수의 변화 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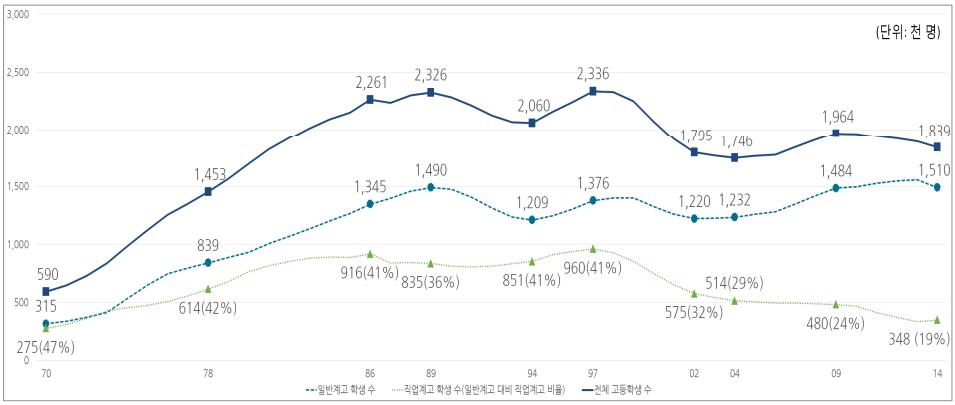
한편,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교 수는 1973년도까지는 563개교로 일반계 고등학교 수보다 많았으나 1974년 이후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계고의 학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것과 달리, 직업계 고등학교 학교 수는 소폭 증감을 반복하며 1996년에는 771개교였

www.kci.go.kr

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2011년도에는 499개교로 전년도 692개교에 비해 193개교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급감은 2010년도에 제시된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의 영향으로,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에서는 소규모 직업계 고등학교의 통·폐합, 교원의 재배치 및 전공 전환을 통한 종합고 등 전문계고[2]의 일반계고 전환을 추구한 바 있다.

나.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생 수 변화 추이

학생 수의 변화는 중등단계 직업교육뿐만 아니라 교육 전반의 규모에 걸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교육통계연보를 통해 1970년부터 2014년까지의 전체 학생 수를 확인한 결과, 고등학생의 수가 1989년도까지는 꾸준히 증가하여 2,326,062명에 달했으나 이후 소폭 감소하여 1994년에 2,060,325명으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여 1997년에는 2,336,725명에 달했다. 이후에는 꾸준한 감소세를 보인다고 볼 수 있으며, 2014년에는 1,839,372명으로 1997년 이후 497,353명이 감소하였다.



[그림 2] 고등학교 학생 수 추이(1970-2014)

자료1: 교육통계연보(1970-2014)
자료2: 교육부 내부자료(2014). 직업교육관련 고등학교 현황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 수는 90년대 후반까지는 전체 고등학교 학생 수의 변화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 왔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학생은 1989년까지 꾸준

2)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제5 차 국가고용전략회의 제3 호 안건, 관계부처 합동('10.5.12))에서 '전문계 고교' 명칭이 '특성화 고교'로 변경되었으나(초중등교육법시행령 76조의2('10.6.29 개정)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전문계 고교'명칭을 사용함(이병욱, 2011).

www.kci.go.kr

히 증가하여 1,490,846명에 달했다. 이후 소폭 감소하여 1994년에 1,209,330명으로 줄었으나, 다시 증가하여 1997년에는 1,376,688명에 달했다. 이후에는 학령인구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1,510,209명에 달해, 1997년 이후 133,521명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생 수는 90년대 후반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1970년 275,015명으로 시작하여 1986년 916,983명에 달했으나, 1989년에는 835,216명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7년에는 960,037명에 달했는데, 이는 1970년보다 685,022명이 증가한 것으로 직업계고가 90년대 후반까지는 꾸준히 증가해왔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1997년 이후, 학령인구의 감소 및 고등단계 직업교육을 확대·육성하는 정부의 정책에 맞물려 직업계고 학생 수는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에는 특성화고의 학생 수가 348,518명으로 확인되어, 1997년보다 611,519명 감소하였다.

일반계고 대비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생 수의 감소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고등학교 학생 수에서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 수가 차지하는 비율 추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 수 비율의 추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1970년에는 전체 고등학교 학생 수의 47%를 차지하였고, 1973년에는 51%로 70년 대비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6년에는 40%로 73년 대비 11% 하락하였고, 1980년에는 45%로 다소 증가하였다가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1990년에는 35%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1995년 1996년에는 42%에 달했다. 그러나 이후 다시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며 2010년에는 24%, 2014년에는 19%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일반계고 대비 직업계고 비율 변화에 영향을 미친 원인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960년대는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기술인력 양성이 국가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되고(이재원, 2001), 이에 따라 직업계 고등학교가 중점적으로 육성되었다. 이와 같은 국가의 지원에 힘입어 70년대 초반까지는 직업계 고등학교가 전체 고등학교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송창용, 민주홍, 성양경, 2009). 1970년대에는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1973년 이후 일반계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 고등학교 학생 수 대비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 수의 상대적인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부터는 고등단계 직업교육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국가의 전체적인 담론이 향후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고등단계 직업교육을 이수한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에는 80년대 중반이후 급속히 증가한 제조업 분야의 인력 수요에 맞춰 '고교교육체제 개편안(1990.05)'이 제시되었다. 이 개편안에 따라 1993년부터 직업교육을 이수하는 학생 수의 확충 계획이 실시되었

www.kci.go.kr

고, 1998년까지 공고생의 수를 44만 명으로 확대하는 계획이 추진되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비율이 다소 상승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기존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양적 교육정책이 수정되고 직업교육의 질적 내실화를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방향을 계속교육 모형으로 전환함에 따라 직업교육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 외에도 최근에는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2010.05)'을 통해 마이스터고 50개교, 특성화고 350개교로의 체제개편을 발표하며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규모에 있어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와 같이 중등단계 직업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정책적 요인에 의해서도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고 할 수 있다.

2.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와 관련된 논의

가.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 축소와 관련된 논의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에 대해 직접적으로 논의된 연구는 많이 있지 않으나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 조정과 관련하여 적정규모를 언급한 선행연구들 대부분 학령인구 감소를 주요한 영향 요인으로 설정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이혜영 외(2011)는 학령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를 주요하게 고려하여 초·중등단계의 학생 수를 추정하였으며 정진철 외(2010)는 직업계 고등학교의 체제개편에 대한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정책에 따라, 충청북도의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적정 학교 수를 분석하고 감축해야 할 학교 수를 분석하였다.

또한 시도교육청 대상 중등단계 직업교육 적정규모에 대한 논의를 살펴본 결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를 축소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70.59%)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를 현행대로 유지(11.76%)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5.88%)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교육부,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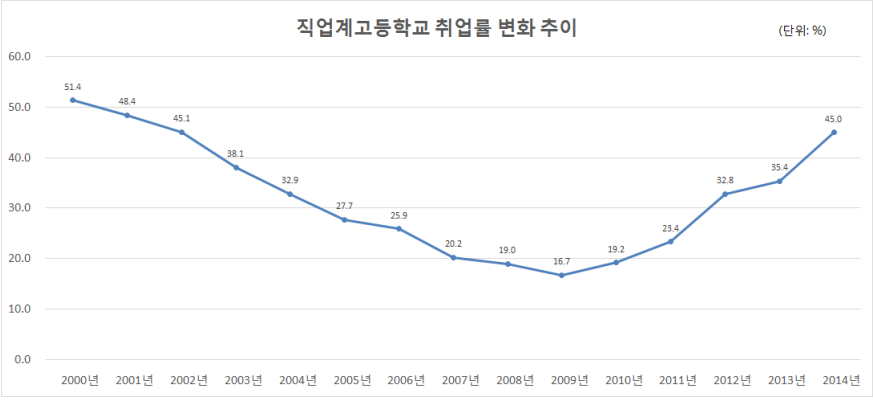
이와함께 학령인구 감소와는 별개로 학생 수 소수정예화를 통한 중등단계 직업교육 위상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세계일보, 2010, 이공래 외, 1999)들도 존재하고 있으며, 중등단계 직업교육 질 제고를 위하여 소규모 학교 지향 정책 추진 및 직업계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박도순 외, 2004)들도 나타나고 있다.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소규모 학교 지향은 해외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은 소규모 학교 지향 정책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및 학업지속성 등이 향상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Trautvetter, 2009).

www.kci.go.kr

나.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 현행 유지 및 확대와 관련된 논의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와 관련한 선행연구들 중 박동열 외(2010)는 전문계 고졸 인력이 노동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신규 수요는 누적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에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 수요를 반영한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가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하였다. 김진모(2015) 역시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 변화만을 고려하여 중등단계 직업교육 적정규모를 산출하는 것이 아닌 학령인구 변화와 함께 산업체 수요 및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적 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생 수는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논의하고 있다. 나승일 외(2009)와 정철영(1997)의 연구에서도 중등단계 직업교육은 산업계가 요구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 및 공급하는 기능을 주요하게 수행해야 함을 언급하며, 사회가 변화하더라도 고등학교 수준의 기능 인력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산업계 수요는 직업계고 고졸자 취업률 변화 및 산업계 고졸인력 채용 의사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최근 15년간 직업계 고졸자의 취업률 변화를 살펴보면 직업계고의 졸업자수는 2000년 이래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취업자 수는 2009년까지 감소 후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직업계 고졸자의 취업률은 2000년 51.4%에서 2009년 16.7%로 급감했으나, 이후 2014년에는 45.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 최근 15년간 직업계 고졸자 취업률 변화

주1. 2014년도의 경우 마이스터고 제외
주2. 2011년도까지는 직업계고등학교 내에 종합고등학교 자료 포함
주3. 취업률(%)=(취업자수/졸업자수)*100
자료: 교육통계연보(2000-2014)

www.kci.go.kr

또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4.2.12)에 따르면 직업계 고졸 취업자 중 상용직 근로자의 비율은 2011년 48.8%에서 2013년 62.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시직 근로자의 비율은 2011년 24.7%에서 2013년 12.2%로 감소해 산업계에서는 장기근무 인력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직업계고에서 이를 충족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계의 고졸인력 채용의사는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해볼 수 있는데 고졸 취업과 관련한 연구 결과에서도 산업계에서는 고졸 인력을 지속적으로 채용할 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우, 최수정(2014)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절반 이상이 전문대학 졸업생보다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근무태도가 더 성실하고(70.0%), 대인관계 역량이 높다(61.7%)고 응답하였으며,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채용한 기업의 88.9%가 향후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지속적으로 채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김향아(2013)의 고졸 채용 확대 현황에 대한 연구에서도 향후 고졸인력의 직무능력 수준이 높아질 경우 69.9%의 기업이 고졸인력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처럼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와 관련한 연구 및 논의들을 살펴본 결과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와 관련하여 어떤 요인을 주요하게 고려했는지에 따라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규모에 대한 상의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령인구 감소 및 학급당 인원 수, 교원 등을 주요하게 고려한 경우에는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그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업계 수요를 주요하게 고려한 경우에는 중등단계 직업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 규모를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Ⅲ. 연구의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는 중등단계 직업교육 관련 현장 이해관계자 범위를 시도교육청의 직업교육 담당자,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의 교장, 교감 및 취업담당부장교사, 학교 연계 산업체의 인사담당자, 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로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은 기본적으로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모집정원에 관여하고 영향을 받는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중등단계 직업교육은 산업인력양성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산업계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되어 산업계 및 단위학교

www.kci.go.kr

의 취업담당부장 교사를 연구대상에 추가하였다. 각 대상별 모집단을 확인하고 다단계 표집(multistage sampling)을 통해 표본을 추출하였다. 먼저 시도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 직업교육 담당자를 표본으로 선정하였으며 직업교육 관련 과장 1명, 장학관 1명, 장학사 1명으로 구성하여 총 51명을 표집하였다. 특성화 및 마이스터고는 504개교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교장 1명, 교감 1명, 취업담당교사 1명 총 1,512명을 표집하였다. 산업체의 경우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와 연계된 산업체로 단위학교당 3개 업체를 임의로 선정하여 총 1,512명을 표집하였다. 마지막으로 중학교의 경우 모집단 3,173개교 중 지역, 학교 규모, 학교 유형(공학유무, 공·사립)을 고려한 층화표집을 통해 약 300개교를 선정하였으며 각 중학교별 진로진학상담교사 1명 총 300명을 표집하였다.

2. 조사 도구

연구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사 도구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연구자들이 개발하였으며, 크게 3개의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영역은 중등단계 규모와 관련하여 현황에 대한 인식(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두 번째 영역은 중등단계 직업교육 산업수요에 대한 인식(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세 번째 영역은 중등단계 직업교육 적정규모에 대한 인식(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대상 모두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이해관계가 있으나 조사 내용에 대한 인지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응답대상에 따라 문항에 차이를 두어 구성하였다. 산업체에게는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과규모 조정방향에 대한 문항을 제외하였으며, 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에게는 산업인력 수요에 대한 인식과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과규모 조정방향에 대한 문항을 제외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표1 참고>). 조사도구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직업교육 관련 교수 2명, 박사 2명, 박사과정 3명에게 내용 타당도를 검토 받았다.

<표 1> 설문조사 문항 구성 및 조사대상

영역	세부내용	조사대상				
		시도 교육청	교장·교감	취업담당 부장교사	산업체 인사	진로진학 상담교사
중등단계직업교육 현황에 대한 인식	인구변화를 고려한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 변화	○	○	○	○	○
	현재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교 수	○	○	○	○	○

www.kci.go.kr

영역	세부내용	조사대상				
		시도 교육청	교장·교감	취업담당 부장교사	산업체 인사	진로진학 상담교사
	현재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생 수	○	○	○	○	○
중등단계직업교육 산업 수요에 대한 인식	고졸인력 산업수요 전망	○	○	○	○	-
	산업 수요에 따른 직업교육 확대 분야	○	○	○	○	-
중등단계직업교육 적정규모에 대한 인식	바람직한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 개편방향	○	○	○	○	○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과 조정 방향	○	○	○	-	-

3.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은 2014년 5월 12일부터 21일까지 총 10일간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에 응답한 대상은 시도교육청 관계자 41명,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교장·교감 396명, 취업담당부장교사 328명, 산업체 인사 250명, 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283명 총 1,298명이며 불성실 응답 및 무응답자가 없어 1,298명의 응답자료 모두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시도교육청	직업계고 교장·교감	직업계고 취업담당 부장교사	산업체	중학교 진로진학 상담교사	계
성별	남성	33(80.5)	356(89.9)	263(80.2)	186(74.4)	92(32.5)	930(71.6)
	여성	8(19.5)	40(10.1)	65(19.8)	64(25.6)	191(67.5)	368(28.4)
지역	서울	1(2.4)	57(14.4)	55(16.8)	39(15.6)	44(15.5)	196(15.1)
	경기	2(4.9)	58(14.6)	44(13.4)	54(21.6)	62(21.9)	220(16.9)
	인천	1(2.4)	4(1.0)	7(2.1)	2(0.8)	3(1.1)	17(1.3)
	강원	2(4.9)	29(7.3)	21(6.4)	7(2.8)	8(2.8)	67(5.2)
	충북	3(7.3)	13(3.3)	15(4.6)	8(3.2)	5(1.8)	44(3.4)
	충남	3(7.3)	35(8.8)	31(9.5)	39(15.6)	13(4.6)	121(9.3)
	세종	3(7.3)	2(0.5)	1(0.3)	2(0.8)	0(0.0)	8(0.6)
	전북	3(7.3)	10(2.5)	6(1.8)	3(1.2)	7(2.5)	29(2.2)
	전남	1(2.4)	31(7.8)	30(9.1)	0(0.0)	11(3.9)	73(5.6)
	대전	3(7.3)	7(1.8)	5(1.5)	5(2.0)	10(3.5)	30(2.3)
	광주	2(4.9)	9(2.3)	6(1.8)	1(0.4)	10(3.5)	28(2.2)
	경북	3(7.3)	44(11.1)	40(12.2)	42(16.8)	17(6.0)	146(11.2)

www.kci.go.kr

	경남	3(7.3)	27(6.8)	14(4.3)	8(3.2)	21(7.4)	73(5.6)
	부산	2(4.9)	20(5.1)	24(7.3)	12(4.8)	20(7.1)	78(6.0)
	대구	3(7.3)	27(6.8)	15(4.6)	17(6.8)	14(4.9)	76(5.9)
	울산	3(7.3)	10(2.5)	7(2.1)	8(3.2)	6(2.1)	34(2.6)
	제주	3(7.3)	13(3.3)	7(2.1)	3(1.2)	32(11.3)	58(4.5)
계		41(100.0)	396(100.0)	328(100.0)	250(100.0)	283(100.0)	1,298(100.0)

이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2.0을 활용하였으며, 분석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유의수준 5%로 설정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교차분석, F검정의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의 결과 및 해석

1. 중등단계 직업교육 현황에 대한 인식

현재 인구 및 인구성장률을 고려할 때, 향후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규모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시도교육청, 직업계고 교장 및 교감, 직업계고 취업담당 부장교사, 산업체 인사, 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집단에 따른 인구변화를 고려한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 변화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인구감소 대비 큰 폭 감소	인구감소 대비 동등 감소	인구감소 대비 작은 폭 감소	인구감소 상관없이 유지	기타	계	χ^2	p
시도교육청	9 (22.0)	18 (43.9)	6 (14.6)	8 (19.5)	0 (0.0)	41 (100.0)	31.356	0.012*
교장·교감	107 (27.0)	171 (43.2)	56 (14.1)	57 (14.4)	5 (1.3)	396 (100.0)		
취업담당 부장교사	100 (30.5)	120 (36.6)	62 (18.9)	42 (12.8)	4 (1.2)	328 (100.0)		
산업체 인사	71 (28.4)	99 (39.6)	44 (17.6)	35 (14.0)	1 (0.4)	250 (100.0)		
진로진학 상담교사	54 (19.1)	107 (37.8)	60 (21.2)	62 (21.9)	0 (0.0)	283 (100.0)		
계	341 (26.3)	515 (39.7)	228 (17.6)	204 (15.7)	10 (0.8)	1,298 (100.0)		

*p<.05
주: 기타는 직업교육 규모 증가, 특별한 의견이 없음, 무응답 등을 의미함

www.kci.go.kr

각 집단의 응답 빈도를 교차 분석한 결과, 각 집단에 따라 향후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 변화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χ^2=31.356, p<.05). 모든 응답 집단에서 '인구와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가 동등하게 감소'할 것이라고 인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이후 순위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과 직업계고 교장·교감의 경우 '인구감소 대비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 '인구감소 상관없이 유지된다', '인구감소 대비 작은 폭으로 감소한다' 순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계고 취업담당부장교사와 산업체 인사의 경우, '인구감소대비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 '인구감소 대비 작은 폭으로 감소한다', '인구감소 상관없이 유지한다' 순으로 응답하였다. 한편, 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의 경우 '인구감소 상관없이 유지한다', '인구감소대비 작은 폭으로 감소한다', '인구감소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다'의 순으로 응답하여, 다른 응답집단과 응답 형태에 차이를 보였다.

이를 통하여 모든 집단들은 인구 변화를 고려한 경우 인구 감소 비율과 동등하게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가 감소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취업담당부장교사 및 산업체 인사인 경우 인구변화를 고려할 때는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가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 감소 폭이 작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현재 전국의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교의 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시도교육청, 직업계고 교장 및 교감, 직업계고 취업담당부장교사, 산업체, 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집단에 따른 현재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교 수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Dunnett T3				
					1	2	3	4	5
시도교육청	41	2.58	1.32	34.117***					***
교장·교감	396	2.66	1.20					***	***
취업담당부장교사	328	2.66	1.24					***	***
산업체 인사	250	2.31	1.16			***	***		***
진로진학상담교사	283	1.99	1.04		***	***	***	***	

*p<.05, **p<.01, ***p<.001

주: Levene검정에서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아 Dunnett T3 검정에 따라 집단간 평균 차이 비교

현재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교 수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 결과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4.117, p=.0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www.kci.go.kr

직업계고 교장·교감, 직업계고 취업담당부장교사(평균 2.66)가 적당한 수준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시도교육청(2.58)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교 수에 대해서 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평균 1.99)는 다른 이해관계자 집단보다 유의하게 적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체(평균 2.31)의 경우에도 시도교육청 직업교육 담당자를 제외한 타 집단보다 유의하게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교 수가 적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모든 집단이 인구 변화를 고려한 경우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는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현재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교 수는 약간 부족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다른 집단에 비해 인구변화를 고려한 경우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가 감소할 것이라고 인식한 비율이 높았던 산업체 인사 및 취업담당부장교사 역시 현재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교 수는 약간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산업체 인사의 경우 학교 수가 적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잠재적 수요층 관점의 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의 경우는 다른 집단에 비해 현재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교 수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현재 전국의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생 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도교육청, 직업계고 교장 및 교감, 직업계고 취업담당부장교사, 산업체 인사, 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집단에 따른 현재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생 수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Dunnett T3				
					1	2	3	4	5
시도교육청	41	2.68	1.51	22.392***					***
교장·교감	396	2.56	1.23					***	***
취업담당부장교사	328	2.63	1.28					***	***
산업체 인사	250	2.29	1.12			***	***		***
진로진학상담교사	283	2.05	1.15		***	***	***	***	

*p<.05, **p<.01, ***p<.001

주: Levene검정에서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아 Dunnett T3 검정에 따라 집단간 평균 차이 비교

현재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생 수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 결과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22.392, p=.00).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도교육청(평균 2.68)이 적당한 수준에 약한 못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직업계고 취업담당부장교사(평균 2.63), 직업계고 교장·교감(평균 2.56)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생 수에 대해서 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평균 2.05)는 다른 이해관계자 집단보다 유의하게 적다

www.kci.go.kr

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체(평균 2.29)의 경우에도 시도교육청 직업교육 담당자를 제외한 타 집단보다 유의하게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생 수가 적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 수에 대한 인식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모든 집단이 현재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생 수가 약간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직접적인 중등단계 직업교육 수요자라 할 수 있는 산업체 인사 및 진로진학상담교사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생 수가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중등단계 직업교육 산업수요에 대한 인식

고졸 인력에 대한 산업수요가 향후 10년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묻는 물음에 시도교육청, 직업계고 교장 및 교감, 직업계고 취업담당부장교사, 산업체 인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집단에 따른 고졸인력 산업수요 전망에 대한 인식

구분	빈도(명)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1	2	3	4
시도교육청	41	2.82	1.51	3.915**				
교장·교감	396	2.76	1.38					
취업담당부장교사	328	2.86	1.40					***
산업체 인사	250	2.57	1.39				***	

**p<.01
주: Levene검정에서 등분산이 가정되어 Scheffe 검정에 따라 집단간 평균차이 비교

향후 고졸인력에 대한 산업수요 변화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 결과 집단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3.915, p<.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업담당부장교사(평균 2.86)는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비교적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 시도교육청(평균 2.82), 직업계고 교장·교감(평균 2.76)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집단 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체 인사는 현재 수준 유지에 약간 못 미칠 것이라고 인식(평균 2.57)하는 비율이 가장 높아 집단 중 향후 고졸인력에 대한 산업수요에 대해 가장 낮은 인식 수준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이를 통해 대부분의 집단이 고졸인력 산업수요가 현재 수준 유지에 약간 못 미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직업계고 취업담당 부장교사의 경우 실제 산업체 인사에 비해 향후 고졸인력 산업수요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ww.kci.go.kr

보다 구체적인 고졸인력 산업수요 분야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수요를 고려하여 중등단계 직업교육에서 확대해야 할 분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시도교육청, 직업계고 교장 및 교감, 직업계고 취업담당부장교사, 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집단에 따른 산업수요 고려 확대 분야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농업 계열	공업 계열	상업 계열	수산해운계열	가사실업계열	계	χ^2	p
시도교육청	3 (7.3)	18 (43.9)	8 (19.5)	2 (4.9)	10 (24.4)	41 (100.0)	21.494	0.044*
교장·교감	34 (8.6)	229 (57.8)	78 (19.7)	14 (3.5)	41 (10.4)	396 (100.0)		
취업담당부장교사	23 (7.0)	189 (57.6)	84 (25.6)	10 (3.0)	22 (6.7)	328 (100.0)		
산업체 인사	21 (8.4)	151 (60.4)	54 (21.6)	8 (3.2)	16 (6.4)	250 (100.0)		
계	81 (8.0)	587 (57.8)	224 (22.1)	34 (3.3)	89 (8.8)	1,015 (100.0)		

*p<.05

교차분석 결과, 집단별로 산업수요에 따른 규모 확대 분야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χ^2=21.494, p<.05). 모든 집단에서 '공업계열(57.8%)', '상업계열(22.1%)' 순으로 직업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수산해운계열(3.3%)'의 경우 직업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도교육청 및 직업계고 교장·교감의 경우 '농업계열(7.3%, 8.6%)'보다 '가사실업계열(24.4%, 10.4%)'의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직업계고 취업담당부장교사와 산업체의 경우 '가사실업계열(6.7%, 6.4%)'보다 '농업계열(7.0%, 8.4%)'의 확대에 더욱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를 통하여 모든 집단들은 '공업계열'을 가장 확대해야할 분야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산해운계열'에 대한 확대 인식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계열'과 '가사실업계열'의 경우 집단별 인식차이가 나타났는데 중등단계 직업교육 공급자 관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시도교육청과 직업계고 교장·교감의 경우 '농업계열' 보다는 '가사실업계열'을, 수요자 관점의 취업담당부장교사와 산업체 인사의 경우 '가사실업계열' 보다 '농업계열'을 보다 확대해야하는 분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www.kci.go.kr

3. 중등단계 직업교육 적정규모에 대한 인식

인구변화, 현재 학교 수 및 학생 수, 산업수요에 대한 인식 확인 후, 보다 직접적으로 향후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규모를 개편하는 데 있어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시도교육청, 직업계고 교장 및 교감, 취업담당부장교사, 산업체 인사, 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집단에 따른 바람직한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 개편방향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현재 비율 유지	직업교육 -인구비율 동일감소	직업교육 비율 감소 및 소수정예	직업계고 유지 및 일반고 감소	기타	계	χ^2	p
시도교육청	3 (7.3)	7 (17.1)	13 (31.7)	18 (43.9)	0 (0.0)	41 (100.0)	99.085	0.000***
교장·교감	24 (6.1)	137 (34.6)	50 (12.6)	182 (46.0)	3 (0.8)	396 (100.0)		
취업담당 부장교사	42 (12.8)	72 (22.0)	69 (21.0)	142 (43.3)	3 (0.9)	328 (100.0)		
산업체 인사	49 (19.6)	38 (15.2)	56 (22.4)	99 (39.6)	8 (3.2)	250 (100.0)		
진로진학 상담교사	62 (21.9)	46 (16.3)	46 (16.3)	125 (44.2)	4 (1.4)	283 (100.0)		
계	180 (13.9)	300 (23.1)	234 (18.0)	566 (43.6)	18 (1.4)	1,298 (100.0)		

***p<.001

각 집단의 교차분석 결과, 응답집단에 따라 인식하고 있는 바람직한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 개편방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χ^2=99.085, p=.00).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응답 집단에서 '직업계고 유지 및 일반고 감소'로의 개편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의 경우,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를 감소시켜 소수 정예화해야 한다는 의견(31.7%)' 역시 다수 나타났으며, 직업계고 교장 및 교감의 경우에는 '직업교육을 인구 비율과 동일하게 감소해야 한다는 의견(34.6%)'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취업담당부장교사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한 양상으로 '직업교육을 인구비율과 동일하게 감소(22.0%)', '직업교육 비율 감소 및 소수정예화(21.0%)'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산업체의 경우에는 '직업교육 비율감소 및 소수정예화(21.0%)', '현재 비율 유지(19.6%)'순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의 경우 '현재의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21.9%)'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많이 나타났다.

www.kci.go.kr

이처럼 모든 집단에서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 개편에 있어 직업계고 규모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일반고 규모를 감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인구변화를 고려한 경우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산업수요 역시 현재 수준에 약간 못 미칠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바람직한 개편 방향에 있어서는 모든 집단이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를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일반계고 규모는 감소해야 한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다 구체적으로 향후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학과 규모 조정 방향에 대해 시도교육청, 직업계고 교장 및 교감, 취업담당부장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10>과 같다.

<표 9> 집단에 따른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과 규모 조정 방향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모든 학과 학생 정원 동일 수로 조정	모든 학과 학생 정원 동일 비율 조정	학과 학생 수요 고려 규모 비율 조정	학교운영 목표에 따라 학과규모 조정	기타	계	χ^2	p
시도교육청	1 (2.4)	4 (9.8)	35 (85.4)	0 (0.0)	1 (2.4)	41 (100.0)	13.451	-
교장·교감	8 (2.0)	45 (11.4)	311 (78.5)	21 (5.3)	11 (2.8)	396 (100.0)		
취업담당 부장교사	18 (5.5)	47 (14.3)	230 (70.1)	20 (6.1)	13 (4.0)	328 (100.0)		
계	27 (3.5)	96 (12.5)	576 (75.3)	41 (5.4)	25 (3.3)	765 (100.0)		

각 집단의 교차분석 결과, 응답집단에 따라 인식하고 있는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과 규모 조정 방향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응답집단에서 '학과에 대한 학생 수요를 고려하여 학과 규모 비율을 조정하겠다는 응답(75.3%)'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모든 학과 학생 정원을 동일한 비율로 조정하겠다는 응답(12.5%)', '학교운영 목표에 따라 학과 규모 조정(5.4%)', '모든 학과 학생 정원을 동일한 수로 조정한다는 응답(3.5)' 순으로 나타났다.

모든 집단에서 학과에 대한 학생 수요를 고려하여 학과 규모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나 모든 학과에 대해 일괄적으로 동일 비율, 동일 수로 학과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아닌 '학생 수요'를 반영한 학과 조정이 일어나야 함을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www.kci.go.kr

Ⅴ. 요약 및 결론

1. 요약

그동안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며 어떠한 요인을 주요하게 고려했는지에 따라 축소해야 한다는 측면과 유지 및 확대해야 한다는 측면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어왔다. 이 연구는 중등단계 직업교육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에 대한 관련 이해관계자의 인식조사를 통해서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규모에 대한 정책적 방향 수립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 관련 이해관계자인 시도교육청 직업교육 담당자, 직업계고 학교관리자(교장·교감) 및 취업담당부장교사, 학교연계 산업체의 인사담당자, 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이다. 이들의 중등단계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은 정부정책과 직업교육 수요 및 직업교육의 현황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의 의견을 분석하고 종합하는 것은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규모와 관련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되는데 그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중등단계 직업교육 현황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인구변화를 고려할 경우, 향후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하는지, 현재의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교 수에 대한 인식, 학생 수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현재 인구 및 인구성장률을 고려할 때, 향후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규모 변화에 대한 응답은 모든 응답 집단에서 인구와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가 동등하게 감소할 것이라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하지만 현재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교 수 및 학생 수에 대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적당'보다 부족한 수준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중등단계 직업교육 수요자라 할 수 있는 산업체 인사와 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의 경우에 타 집단과 유의미한 수준에서 현재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교 수 및 학생 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등단계 직업교육 산업수요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중등단계 직업교육 산업수요로는 고졸인력의 향후 10년간 수요 변화에 대한 인식, 직업교육 수요에 따른 확대 분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고졸 인력에 대한 산업수요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 집단에서 평균적으로 현재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인식하였다. 특히, 직업계고 취업담당 부장교사의 경우 산업체 인사보다 고졸인력 산업수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계 수요를 고려하여 중등단계 직업교육

www.kci.go.kr

에서 확대해야 할 분야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모든 응답 집단에서 동일하게 공업계열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뒤로 상업계열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났다. 수산·해운계열의 경우 모든 응답집단에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셋째, 바람직한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 개편방향,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과 규모 조정 방향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향후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에 대해 이해관계자 집단에 따라 유의미한 인식 차이가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모든 응답 집단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규모를 감소시키고 직업계고등학교의 규모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과 규모 조정 방향성에 대해 학과 학생 수요를 고려하여 규모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2. 결론

이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등단계 직업교육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인구변화를 고려한다면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 인식하지만, 현재의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교 수 및 학생 수가 적정한 수준보다 부족하다고 인식함으로써 중등단계 직업교육 적정규모 인식에 있어 인구변화 외에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직접적인 수요자인 산업체 인사와 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교 수 및 학생 수가 더욱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고졸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하는 관점인 시도교육청 및 직업계고 관계자와 실제 학생 수요 및 산업체 수요자 관점의 산업체 인사 및 중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간의 인식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현재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에 대하여 공급자 관점과 수요자 관점에 따라 다른 인식 수준을 보이고 있기에 향후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 개편 방향 설정에 있어서는 공급자 관점과 수요자 관점을 균형 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제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와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공급자 관점과 수요자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를 추정하기보다 학령인구 변화 및 입학자원 변화 등 공급자 관점의 요인들을 주요하게 고려하여 추정하는 경우, 노동시장 요구 및 산업계 수요 등 수요자 관점의 요인들을 주요하게 고려하여 추정하는 경우 등 중등단계 직업교육과 관련된 공급과 수요 관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학령인

www.kci.go.kr

구 감소, 산업계 수요, 더 나아가 정책적 영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 개편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중등단계 직업교육에 대한 산업수요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모든 이해관계자 집단에서 평균적으로 현재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중등단계 직업교육 이해관계자들은 고졸인력 수요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지는 않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고졸인력 수요를 전문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는 고졸인력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박동열 외, 2010; 한국고용정보원, 2012), 산업계 수요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직업계고 취업률 역시 최근 45.0%까지 증가하는 등 고졸인력에 대한 산업계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초과 수요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은 고졸 인력 수요가 현행 수준보다 약간 못 미칠 것이라고 인식함으로써 고졸인력에 대한 산업계 수요에 중등단계 직업교육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현 정부에서는 고졸취업 활성화와 관련된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수요에 대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인식은 아직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 조정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산업계 수요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공을 통한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바람직한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 개편 방향을 조사한 결과, 모든 응답 집단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규모를 감소시키고 직업계고등학교의 규모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변화를 고려한 경우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산업수요 역시 현재 수준에 약간 못 미칠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와 관련하여 바람직한 개편 방향에 있어서는 모든 집단이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를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일반계고 규모는 감소해야 한다고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에 있어 큰 변화는 2010년 발표된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에서는 중등단계 직업교육 질적 내실화를 위하여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양적 축소를 이행하였다. 이러한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양적 축소는 이해관계자들의 인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의 양적 축소는 지나치게 단기간에 시행되었고, 지역 및 학교별 실정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제시된 직업계고 교원 수급의 방안들이 오히려 직업계고의 질을 저하시키는 방안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이광호, 2010). 또한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는 국가 산업인력양성이라

www.kci.go.kr

는 주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당위적 차원에서도 일정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실제 산업수요가 발생함에도 전반적으로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하여 중등단계 직업교육 비율(18.9%)은 일반계고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일반계고 대비 직업계고 비율은 OECD 평균인 46%와 비교해보다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 개편에 있어서 이러한 현장의 의견 또한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연구는 중등단계 직업교육 분야의 이해관계자들만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중등단계 일반교육 분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포괄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에 향후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중등단계 교육의 적정규모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중등단계 직업교육 이해관계자의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실제적인 인식을 조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에 대한 정책 수립에 있어 학령인구 변화, 산업계 수요 등 객관적 지표에 근거하여 중등단계 직업교육 규모를 추정하여 개편 방향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고자 하는 현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개편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www.kci.go.kr

▣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14.2.12.)
교육과학기술부(2010).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부(2015). 시·도별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 현황. 교육부 내부자료.
교육부(2015). 시도교육청 고교 학생 배치계획 의견수렴. 교육부 내부자료.
교육통계연보(1970-2014). 고등학교 학생 수.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1970-2014).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수.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1970-2014).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 수.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1970-2014). 직업계 고졸자 취업률.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종우, 최수정(2014). 마이스터고 졸업생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 Krivet Issue Brief, 58.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진모(2015). 중등직업교육 규모 적정화 방안. 2015년도 한국직업교육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중등직업교육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자료집.
김향아(2013). 최근 고졸채용확대 현황과 시사점. 노동리뷰, 97. 83-96.
나승일 외(2009). 정부부처 위탁 지원 특성화고 운영 활성화 방안.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6(2), 49-76.
문대영(2007). 기술 교육의 미래 전망-네 가지 시나리오. 한국기술교육학회지, 7(1), 199-132.
박도순 외(2004).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직업교육체제혁신방안연구. 정책기획위원회.
박동열 외(2010). 전문계고 체제개편 추진 방안(로드맵)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세계일보(2010. 05. 13). retrieved from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0/05/12/20100512004203.html
송창용. 민주홍, 성양경(2009). 직업교육의 현황과 정책동향.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공래 외(1999). 공업계 고등학교 기술교육 진흥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광호(2010).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의 평가. 상업교육연구, 24(3), 67-86.
이병욱(2011). 공업계 고교 전문교과 예비 교사 양성 현황과 필요 교육 요소 분석. 한국기술교육학회지, 11(2), 255-275.
이재원(2001). 기술교육 30년의 회고와 과제. 한국기술교육학회지, 1(1), 9-14.
이혜영 외(2011). 학령인구 감소 대비 교육 부문 구조조정 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정진철, 이종범, 이건남(2010).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충청북도 전문계고 발전 전략 연구. 충청북도 교육청.
정철영(1997). 실업계 고등학교의 성격 규정. 직업교육연구, 16(2), 35-50.
한국고용정보원(2000-2014). 직업계 고졸자 취업률.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고용정보원(2012).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11-2020. 서울: 한국고용정보원.
Lee, V. E., & Smith, J. B. (1997). High school size: Which works best and for whom?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19(3), 205-227.
Trautvetter, S. (2009). Reducing the negative effects of large schools. National Clearinghouse for educational Facilities.

투고일자:2015.10.30. 수정일자:2015.12.16. 게재확정일:2015.12.30.

www.kci.go.kr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Stakeholders' Perception about Secondary Level Vocational Education Size

Jin-Mo Kim(Seoul National University)
Myung-Hun Lee(Chungnam National University)
Si-Kyoon Lee(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Hwa-Young Kim(Ehwa Womans University)
† Young-Ah Cho(Seoul National University)
Min-Cheol Song(Seoul National University)
Bo-Young Jung(Seoul National University)
Wha-Young Choi(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of stakeholders' perception about the number of the secondary level vocational education institution, and to compare their perception. Through this study, researchers wanted to contribute to the making of policy regarding the size of secondary level vocational education institution. This study surveyed manager of vocational education department of provincial education offices, and principals, vice-principals, and teachers in employment department of vocational high schools and meister high schools, representatives of HRD of the industries linked with vocational schools, and career teachers of middle schools. Survey consisted of 7 questions. Frequency analysis, cross analysis, χ^2-test, and F-test were executed. From the finding, first, given the scale of demographic change, stakeholders cognized secondary level vocational education size would be reduced, however, they agnized current number of secondary level vocational schools and students are less than sufficient size. So researchers found that the stakeholders considered other factors are affecting the secondary level vocational education size. Second, all stakeholder groups

† Correspondence: Young-Ah Cho, choa630@snu.ac.kr, 02-880-4712
Wha-Young Choi, whyoch@snu.ac.kr, 02-880-4712

www.kci.go.kr

recognized secondary level industrial demand is less than actual. Third, all response groups appreciated desirable direction, that vocational education institution size be maintained and general education institution size be ba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hange in the student population, high school diploma manpower demand of industries as well as stakeholders' opinions should be reflected in policy establishment.

Keywords: Secondary level vocational education, size of secondary level vocational education, variance analysis of perception

www.kci.go.kr